

## 조선 명종대 을묘왜변에 관한 군과 정부의 대응

문준호\*

1. 머리말
2. 조선의 대왜정책(對倭政策)과 왜구의 전란 계획
3. 을묘왜변의 발발과 전투현장의 군사적 분석
4. 을묘왜변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과 조치
5. 맺음말

### 1. 머리말

朝鮮의 國防政策에 있어 적으로 간주되는 집단은 북방에서의 野人과 남방에서의 倭寇로 양분된다. 이중 왜구는 조선과 중국 연해지역에 침입하여 살인, 약탈, 방화를 자행했던 海賊集團으로써 연안지역에서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하였다. 이러한 왜구의 침구는 다양한

---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원인으로 인해 각 도의 해안에서 일정치 않은 규모로 발발했으며 개별 사건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1555년(명종 10), 명나라를 약탈하고 돌아오던 왜구가 도발한 乙卯倭變은 불분명한 행위주체에 의한 조직적 군사 활동이라는 점, 비교적 대규모의 침구이면서 장기간 전선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는 전무후무한 군사적 사건이기에 다각적 고찰이 요망되는 조선 명종대 주요사건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묘왜변에 대한 연구는 주로 壬辰倭亂 직전에 발생한 국외 해양세력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三浦倭亂과 함께 비교적 소략한 수준으로 다루어져 왔다.<sup>1)</sup> 또한 대일교섭 및 관계사적 차원에서 을묘왜변이 언급되기도 했다.<sup>2)</sup>

을묘왜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당시 주요전장이었던 호남 및 제주지역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는 조선과 일본이 이전부터 체결해왔던 약조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왜변의 전개과정을 다루며 결과 및 영향을 조명했다.<sup>3)</sup> 특히 정영석은 을묘왜변의 발발 배경 및 사후 대책을 폭넓게 분석하였으며, 시공간의 흐름과 전환에 따른 전투 경과도 세찰하였다. 요컨대 전문적으로 을묘왜변을 다룬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sup>4)</sup>

1) 최병욱 등, 『한민족 역대전쟁사』, 행림출판, 1992 ; 최병욱 등, 『倭寇討伐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3 ;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6 - 조선전기II』, 경인문화사, 2012 ; 김재근, 『板屋船考』, 『한국사론』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76 ; 민덕기, 『壬辰倭亂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담론』57, 호서사학회, 2010, 한문중, 『壬辰倭亂 직전의 국내정세와 韓日關係』, 『인문과학연구』21,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09.

2) 이현중,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 한국연구원, 1964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 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 교섭』, 경인문화사, 2010.

3) 송정현, 『論叢 : 乙卯倭變에 대하여 康津周邊을 中心으로-』, 『호남문화연구』1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82 ; 김병하, 『乙卯倭變考』, 『탐라문화』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정영석, 『조선 전기 湖南의 倭變에 대하여-乙卯倭變을 중심으로-』, 『傳統文化研究』3,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4.

한편 윤성익은 전후 왜란과의 연계선상에서 을묘왜변을 분석했던 다수의 연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을묘왜변의 주체를 기존의 왜구와 구분하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sup>5)</sup> 1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혼란에 따라 생성된 해적집단, 이른바 ‘後期倭寇’가 을묘왜변을 일으킨 주체였으므로 종래와 같이 삼포왜란 및 임진왜란의 중간적 사건으로 을묘왜변을 범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외에도 僧軍動員을 주제로 하여 을묘왜변이 소략하게 다루지기도 했으며,<sup>6)</sup> 당대의 특정 인물을 역사적 실체로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을묘왜변이 언급되기도 했다.<sup>7)</sup> 대표적으로 강제훈은 을묘왜변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金澍를 분석하는 가운데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가 내렸던 판단과 행동을 현장전투를 통해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다만 人物研究라는 글의 목적상 을묘왜변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심화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을묘왜변을 다루고 있지만 대체로 당시 현장에서의 전투를 군사적 차원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鎭管體제의 근원적 문제와 군 기강 해이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을묘왜변 이후 備邊司가 상설기구로 변모하였다는 의의만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그러나 을묘왜변은 피아의 군사적 충돌에 의한 사건이므로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現場戰鬪

4) 정영석, 위의 논문, 1994.

5) 윤성익, 「『後期倭寇』로서의 乙卯倭變, 『韓日關係史研究』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6) 안계현, 「朝鮮前期의 僧軍, 『東方學志』 13, 연세대학교 부설 동방학연구소, 1972.

7) 최석기, 「南冥 曹植의 왜구侵入에 대한 憂慮와 對策, 『남명학연구』 15, 남명학회, 2010 ; 정재훈, 「東阜 李浚慶의 정치적 역할과 정치사상, 『한국사상과문화』 55,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강제훈, 「조선 光國功臣 金澍의 가문과 관직 생활, 『한국인물사연구』 19, 한국인물사학회, 2013.

8) 최병옥 등, 앞의 책, 1993 ; 장학근, 『조선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육군군사연구소, 앞의 책, 2012.

分析은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을묘왜변이 일어날 무렵 對倭政策의 문제점 언급을 통해 을묘왜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전투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군사적 분석은 왜구와 조선군을 각 주체로 선정하여 양 세력의 무력충돌에서 나타났던 전술과 대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중앙정부의 정교하지 못했던 외교정책과 非전략적 조치에 대비되는 전투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부각시켜 을묘왜변을 재고하고자 한다.

## 2. 조선의 對倭政策과 왜구의 전란 계획

왜구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혼란은 원활한 국정운영에 차질을 유발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조선은 건국 이후부터 정교하게 대일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幕府將軍, 九州節度使, 大內殿, 壹岐島主, 對馬島主 등 외교 교섭대상을 다원화하여 연해지역에서의 왜구활동 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일사행의 파견대상은 점차 대마도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연산군대부터 명종대까지 왜구문제 해결과 왜인 통제책을 정비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 고려 대상은 대마도 주로 일원화되었다.<sup>9)</sup>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의 입장에서는 왜구의 실체를 파악하는 본질적인 사안보다 이들의 침략행위 방지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즉 왜구는 해안으로부터 침구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해적집단이라는 포괄적 인식이 조선사회 내에서 팽배하게 되었다. 이

9) 한문중,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76~77쪽 참고.

처럼 실제로 각 왜구의 실체가 각각 달랐을지라도 이들은 조선정부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대상으로 범주화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정부의 대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을묘왜변의 배경 또한 동시에 이해될 수 있다.

對馬島 征伐 이후 조선정부는 1426년(세종 8)년부터 부산포, 염포, 제포 등 이른바 三浦를 개항하여 왜인의 왕래와 교역을 허락하였다.<sup>10)</sup> 이후 왜인의 출입이 급증하였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해 1443년(세종 25) 癸亥約條<sup>11)</sup>를 맺어 對馬島主에게 모든 도항자를 규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조선정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대왜관계를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갔다. 대마도주를 통해 포괄적인 범주의 왜구를 제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마도주가 대마도 내의 세력이나 인근 왜인 세력까지는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광범위한 후기 왜구<sup>12)</sup>를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당시 명나라가 시행했던 海禁政策에 기인하여 생성된 다국적 해적집단이었다. 해상교통·무역·어업 등을 강력히 통제했던 명나라의 강경책은 역으로 연안지역에서의 밀무역 성행을 야기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기왜구는 동아시아 전 해역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했다.<sup>13)</sup>

이들의 목적은 무역을 통한 상업행위에 있었지만 자위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기에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제한될 시에는

10) 『世宗實錄』世宗 8年(1426年) 1月 18日. “諭給巨濟土地, 居民開墾已盡, 難以塞請. 兼諭商船往來處, 謹將轉啓, 在前來泊乃而, 富山兩浦外, 蔚山, 鹽浦, 亦許販賣.”

11) 1443년(세종 25) 대마도주와 세건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세건선은 50척이다. 세사미두는 200척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송선 파견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왜구는 그 발생원인·활동지역·구성원 및 주체, 활동의 내용 및 성격에 의해 통상 14~15세기 왜구와 16세기 왜구로 구분되거나 전기왜구와 후기왜구로 분류된다. 윤성익, 앞의 논문, 2006, 154~155쪽.

13) 윤성익, 앞의 논문, 2006, 154~161쪽 참고.

무력 사용을 감행했다.<sup>14)</sup> 이처럼 이들의 경제 활동은 폭력성에 의한 침략행위와 함께 이뤄졌던 것이다. 이러한 후기왜구는 조선의 연안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살인·약탈·방화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이들은 중국인이 다수였던 범국가적 집단임과 동시에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해상세력이었다. 대마도 및 일본 내 왜인에 종속된 관계가 아님은 물론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던 존재였던 것이다.<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왜구에 대한 대마도의 적절한 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였기에 대마도주의 통제가 미치지 못했던 왜구의 약탈 또한 책임을 물었다. 대마도주와의 접촉만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고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조선이 취했던 방식은 교섭의 단절과 같은 강경책이었다. 왜구에 의한 연안지역의 피해뿐만 아니라 왜인 거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지속적인 분란 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강력한 통제는 또한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sup>16)</sup> 이러한 조선의 대외정책에 대한 왜인들의 불만은 곧 삼포왜란의 발발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壬申約條<sup>17)</sup>가 체결되었지만 조선정부의 기조는 변함없이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으며,<sup>18)</sup> 명종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외교노선은 변함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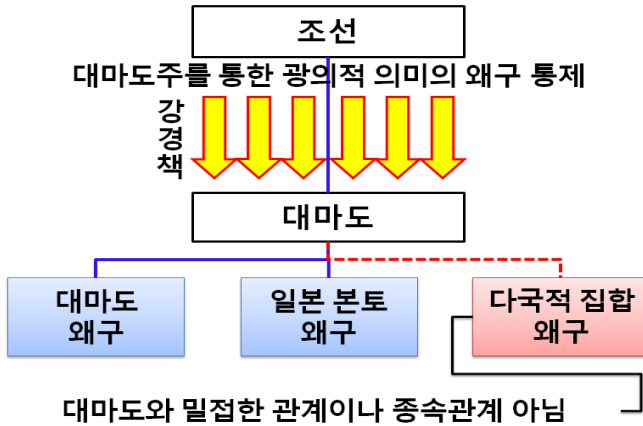
14) 강제훈, 앞의 논문, 2013, 286~287쪽 참고.

15) 後期倭寇가 대마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을묘왜변을 광의의 의미로 왜구에 의한 침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을묘왜변을 발생시킨 후기왜구는 대마도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통제를 받는 집단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두 집단 자체를 하나로 인식할 수 없으며 적어도 분리된 집단이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시 결탁했다는 정도의 해석이 옳을 것이다.

16) 『中宗實錄』中宗 4年(1509年) 4月 2日.

17) 1512년(중종 7) 三浦倭亂 이후 조선과 일본 대마도주 사이에 맺은 무역에 관한 조약으로써 '삼포에 왜인 거주를 금지한다. 포구는 제포 1포만을 개항한다. 세견선은 50척에서 절반인 25척으로 줄이고, 세사미두는 삭감한다.' 등의 강경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18) 김병하는 임신약조로 인해 조일무역이 조공적 성격에서 상업적 성격으로 일면 변모하였고, 이로 인해 대마도측이 구태여 왜구들을 단속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김병하, 앞의 논문, 1989, 79~80쪽 참고.



〈그림 1〉 조선의 대왜정책

조선의 이러한 강경책은 연안지방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배와 그 세력을 참획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명종 즉위 이후부터 을묘왜변 발발 이전까지 조선 연안지방에 왜구가 출현한 것은 총 12회였으며 경상도 울진에서의 침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남에서 발생했다.

이는 모두 10여척이 채 되지 않는 범위 내의 비교적 소규모 침구였으나 지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유발하였기에 邊將들은 이들을 나포하여 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책을 구사했다.

이와 같은 조선의 공세적 방어에 의해 피해를 받았던 주체는 다름 아닌 다국적 연합집단이었던 후기왜구로 판단된다.<sup>19)</sup> 포로로 잡혔던 이덕견에게 왜구가 언급했던 침략의 이유는 다름 아닌 조선이 지난 3~4년간 자신들의 세력을 많이 죽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20)</sup>

19) 현재 학계에서는 14~15세기 왜구를 ‘전기왜구’, 16세기 왜구를 ‘후기왜구’라고 명명하고 있다. 김보한, 「‘전기왜구’와 ‘후기왜구’ 용어의 모순과 새 용어의 선택」, 『일본역사연구』38, 일본사학회, 2013, 100쪽.

20) 『明宗實錄』明宗 10年(1555年) 5月 19日. “汝國與我等相交甚厚, 近來三四年間, 多殺我國無罪之人, 今爲仇讎.”

〈표 1〉 명종대 왜구 침입표(즉위 ~ 을묘왜변)<sup>21)</sup>

구 분	침구지 역	규 모	내 용
1445(명종 즉위). 8.	전라 홍양	황당선 3척	왜구 148명 참획, 282명 생포
1446(명종 1). 9.	전라 안도	3척	왜구 5명 참획, 도검 노획
1446(명종 1). 11.	경상 울진	7척	
1452(명종 7). 5.	전라 제주	1척(100명)	백성 피살, 잡물 약탈
1453(명종 8). 6.	전라 제주	-	-
	전라 진도	1척	-
1453(명종 8). 7.	전라 초도	왜구 7~8명	왜구 1명 참획
	전라 흑산도	-	-
1454(명종 9). 5.	전라 제주	1척	왜구 1명 참획
1454(명종 9). 6.	전라 제주	황당선 1척, 왜선 3척	왜구 23명, 중국인 2명 생포
	전라 보길도	1척	수군 1명 경상
	전라 황경도	1척	왜구 15명 참획, 왜물 노획

동북아 인근 해상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후기왜구는 조선과의 마찰에 따라 일대의 무력충돌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또한 당시 이들 집단 중에는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격목표, 기동로, 지형지물과 같은 제반 전술수립 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할 수 있었다.<sup>22)</sup>

대마도주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왜구에 대한 첩보를 조선 측에

21) 해당 표는 『明宗實錄』 및 정영석, 앞의 논문, 1994, 8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2) 조선인이 왜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윤성익이 당시 후기왜구 중 王直집단에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는 關周一이 후기왜구가 조선 연안지방에 대한 공격목표를 정확히 정한다는 점을 들어 조선인이 왜구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윤성익, 앞의 논문, 2006 ; 關周一, 2003, 『明帝國と日本』 『日本の時代史』11 一揆の時代, 吉川弘文館.

제공하여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다. 대마도주는 일본 서용과 중국 상인이 합심 협력하여 명나라를 약탈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이 조선에도 침략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서계에 언급했다.

近年 같아서는 西戎이 마구 일어나 먼 大明國에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수없이 합니다. 臣이 낮이나 밤이나 부하와 민중들을 위로하기를, ‘이때에 군계 동해를 진압하여 忠節을 바친다면 先例를 모두 복구하게 되어 각자에게 祿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따로 고생을 잊게 되었으니, 만일 하늘이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면 전례대로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전파되기를, ‘日本國 서용들이 지난 10월부터 올봄까지 대명을 침략하기 위해 다투어 건너 간 것이 수만 척이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서용들이 陰謀한 것을 들어보건대 ‘귀국 바다로 해서 대명에 간다면 바다 길이 매우 가까우므로 먼저 귀국 바다로 건너가야만 대명을 침략할 수 있다.’고 한다니, 만일 우리 바다를 지나게 된다면 모조리 죽이어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흰하게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 이 일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단단히 沿海邊을 신척하여 兵備를 갖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sup>23)</sup>

물론 대마도주 서계의 핵심내용은 세견선과 사미를 종전과 같은 액수대로 허락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지만, 그 내용에는 명백히 왜구 침략 가능성과 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이를 심각한 수준의 도발로 예상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실질적 대안수립 자체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대규모 외침인 을묘왜변이 발발했다. 이들의 兵船은 당시 조선의 銃筒으로 제압하기 어려울 만큼 튼튼했으며, 그들이 운용했던 무기 역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sup>24)</sup> 이들은 이전의 침구세력과 달리 치밀한 사전 계획과 뛰어난 전술을 지니고 있던 잘 무장되고 훈련된 집단이었다.

23)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3月 20日.

24) 『明宗實錄』 明宗 20年(1565年) 5月 16日.

### 3. 을묘왜변의 발발과 전투현장의 군사적 분석

1555년(명종 10) 5월 11일, 왜구는 70여 척의 병선을 이끌고 海南과 莞島 사이의 해로를 통해 조선에 접근했다. 이들은 達梁城을 기준으로 좌측의 梨津浦와 우측의 達梁浦에 각각 상륙하여 성저의 민가를 불태우고 達梁城을 곧 포위하였다. 그러나 병선 11척 규모의 왜구만이 조선군에게 식별되었고 이러한 사실만이 加里浦僉使인 李世麟에 의해 全羅道 兵馬節度使 元續에게 보고되었다.<sup>25)</sup>

원적은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인원을 200여명으로 판단하여 즉각 전투지역으로 이동시켰고 長興府使 韓蘊, 靈巖郡守 李德堅과 함께 자신도 현장에 위치하였다. 원적은 즉각적으로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여 병력을 운용한 셈이다. 그러나 노출된 병력은 실제로 왜구의 전체병력이 아니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欺瞞<sup>26)</sup>에 불과했다. 왜구는 원적 등의 지원세력이 달랑성에 입성하자마자 증강된 병력으로 이들을 6겹으로 包圍<sup>27)</sup>하였다. 원적이 이세린의 보고를 통해 인지했던 것보다 침략세력은 훨씬 많았던 것이었다.

전술했던 것처럼 왜구는 의도적으로 일부 병력만을 노출시켜 조선군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원세력을 입성시켜 이들을 포위 공격하고자 했다. 이 또한 불리한 형세를 회피하기 위해 택한 일종의 전술이었던 것이다. 성안의 군사와 성 밖의 구원병이 양면에서 동시에 왜구를 공격할 경우에 부득이

25) 『明宗實錄』 明宗 20年(1565年) 5月 16日.

26) 기만(Deception)이란, 상대의 상황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조작, 왜곡, 징후의 변조를 통하여 발현되며 상대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반응토록 유도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전술이다. 이태규, 『군사용어사전』, 일월서각, 2012 참고.

27) 포위(Envelopment)란, 적의 증원 및 병참지원을 차단하고 퇴각할 수 없도록 하여 고정된 지역에 상대를 에워싸서 공격하는 형태로 빠른 기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전술이다. 이태규, 위의 책, 2012 참고.

하게 그들은 ‘이중전선’을 형성하여 양면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초기 전투인 달량에서의 적 전술은 ‘欺瞞’을 통해 전장에서의 병력 우위를 확보하고 작은 성에 조선군을 몰아넣어 ‘包圍殲滅’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전투의 경과에서 보였던 ‘기만과 포위전술’ 뿐만 아니라 왜구의 침구 이전의 계획수립 또한 치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최초로 정박한 달랑포와 梨津浦는 해안선과 매우 가깝다.<sup>28)</sup> 침략이 제한될 시 퇴각로를 즉각적으로 확보하는데 매우 용이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達島<sup>29)</sup>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육지로 상륙하였다.<sup>30)</sup> 실제 달도와 달량성 인근 해변과의 거리는 500~600m에 불과하고 달량성과의 거리도 1km가 채 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적절한 위치에서 공격에 대한 최종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달량성과 해안의 거리는 약 400m 정도로 일단 상륙만 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해당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달량성은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위치하고 있는 康津의 兵營과 직선거리 30km이상 떨어진 지역이므로 신속한 육군의 지원이 불가한 지역이었다. 실제로 지원세력의 주가 되었던 장흥과 영암 또한 강진보다 더 후방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왜구는 조선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주요 거점과 요로를 장악하고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왜구는 지형적 요건을 고려하여 전략적 측면에서 상륙지역을 사전에 선별하여 침구한 것이다.

왜구의 매복 또한 인근 지역에서의 지원군을 저지·격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海南縣監 邊協과 茂長縣監 李楠이 달량성의

28)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8日. “各鎮之城, 率皆不固, 然潮退之處甚遠, 故倭畏其水落, 不敢近矣. 若達梁則潮退之處甚近, 乘潮入來, 直泊城下, 故其入寇之勢爲易.”

29) 왜구가 달랑포 및 이진포로 침구하였기 때문에 해남과 완도 사이로 침투했다. 따라서 실록 기사에서 등장하는 海島는 오늘 날 달도로 추정할 수 있다.

30)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6日.

상황을 인지한 후 군사 300여명을 이끌고 이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이들은 격파되었고 이남은 이 교전에서 전사했다. 또한 全羅右道 水軍節度使 金贊과 珍島郡守 崔滌 역시 於蘭浦 일대에서 왜구에게 패해 구원에 실패하고 깃발까지 빼앗기는 등 목숨만 건질 수 있었다.<sup>31)</sup> 이처럼 조선군의 사전 매뉴얼에 의한 상호지원은 실행되었으나 왜구의 주요거점 진출에 의해 와해되었던 것이다.

구원군이 차례로 격파되고 달량과 같은 작은 성에서 전투를 지속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원적은 협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왜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 공격하여 달량성을 함락시켰다.<sup>32)</sup> 협상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전투의지가 상실되었다는 것과 전투를 지속하기 위한 물자의 고갈을 뜻하기 때문에 총 공세를 감행했던 것이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원적과 한온은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덕견은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다.



〈그림 2〉 달량성 전투 상황도

31)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1日.

32)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1日.

달랑성의 함락은 그 자체로만 국한시켜 이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었다. 전라도 육군 전체의 수장이었던 원적이 현장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전무한 사건이었으므로 이는 지휘체계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조선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선의 인근 지휘관들이 달랑성 구출을 위해 병력을 동원하였고 결국 교전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방어능력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sup>33)</sup>

이후 달랑성을 점령한 왜구는 이미 방어체계가 무너진 인근 군현들을 각개 격파하며 세력을 확장시켰다. 우선 진도로 이동하여 南桃浦와 金甲浦를 모두 함락하여 보를 불태웠다. 이어서 해남으로 진주했지만 변협과 南桃浦萬戶 宋重器가 적은 군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냈다.<sup>34)</sup> 그러나 왜구는 지속적으로 인근지역에 진출하며 약탈을 자행했다. 동쪽으로는 전라병영이 위치한 강진을 거쳐 전라도 병영의 병기와 군량미 700석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장흥까지 진출하였다.<sup>35)</sup> 임시로 강진을 맡았던 가장과 가관이 성을 버리고 도망쳤기에 소수병력으로 왜구는 이들 지역까지 무난히 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달랑성에서의 승리 이후 왜구는 분산된 형태로 활동하며 영암 이남의 각 지역을 계속하여 약탈하였다.

이와 같이 왜구가 각 진영에 거의 무혈입성하며 약탈을 자행하였기에 당시 全羅道 觀察使였던 金澍는 피해가 북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羅州 이남의 전선을 확보하기 위해 요충지인 영암성에 무재가 있던 全州府尹 李潤慶을 가장으로 파견시켰다. 남쪽에서의 왜구 약탈로 인해 성안에 군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이윤경은 군민을 독려하고 전투의지를 고양시켰다.<sup>36)</sup>

33) 강제훈, 앞의 논문, 2013, 288쪽 참고.

34)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1日.

35)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6日.

36)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6月 1日.

반면 영암성으로 진출한 왜구는 靈巖鄉校<sup>37)</sup>를 지휘소로 삼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왜구는 영암성을 차지하기 위해 달량성에서 구현했던 방식과 같은 전술을 택했다. 이전처럼 이중전선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왜구는 영암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선군의 예상지원로를 파악하여 나주와 영암성 사이에 1,000명을 이동시켜 진로를 봉쇄했고 지원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sup>38)</sup> 그러나 당시 영암성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던 南致勤은 왜구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차후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sup>39)</sup> 남치근이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았던 것은 역설적으로 1,000명의 왜구를 遊兵化시키는데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영산진에 위치하고 있던 趙安國 역시 병력을 선불리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남도포와 金甲島까지 진출했던 왜구에 대한 해상으로의 기습 때문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sup>40)</sup>

달량성과 달리 영암성은 비교적 대규모의 성<sup>41)</sup>이었고 이윤경 또한

37) 현재의 영암향교는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壬辰倭亂 이후 자리를 옮겨 재건된 것이다. 영암성에서의 전투간 왜군이 동문에 집결했다는 점과 서풍을 통한 화전에 의해 적 진영이 불탔다는 점을 토대로 영암향교는 현재 영암읍성지의 동쪽에 위치하였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38)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3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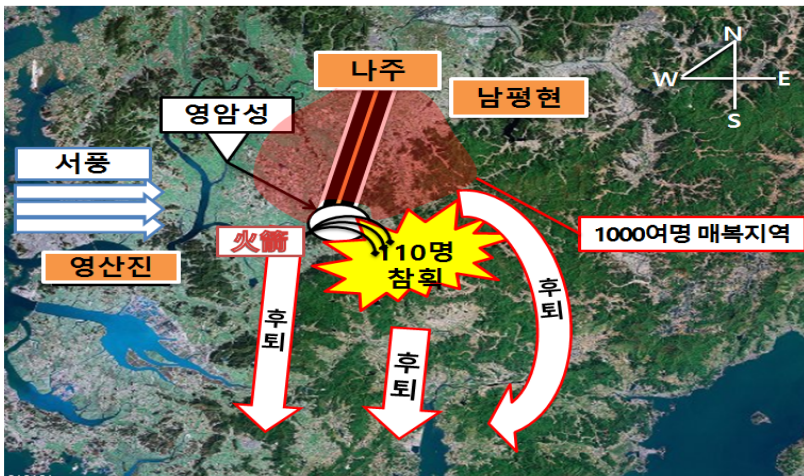
39) 당시 사람은 왜구 1,000명이 조선군 예상지원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 병력을 동원하여 왜적을 섬멸하지 못한 남치근 등을 비난하고 있다.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9日) 그러나 만약 남치근이 진군했다면 달량성에서의 전투양상과 같이 왜구의 매복과 기습에 의해 병력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40) 왜구는 달량성을 구원하기 위한 지원병을 매복을 통해 격퇴하였다. 왜구는 달량성에서 그들이 행했던 전술과 같은 방식으로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영암성은 나주와 가까웠으므로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더욱 대규모의 군대가 온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로에 1,000명을 배치했다. 만약 남치근이 진격했다면 1,000명의 왜구는 지원군을 격파하고 영암성을 포위했을 것이다. 영암성 또한 달량성과 같은 방식으로 함락되었을 가능성이 컸으나 남치근이 진군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왜구 1,000명의 병력은 조선군과 교전하는 것 없이 해당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41) 『文宗實錄』 文宗 1年(1451年) 8月 21日. “靈巖郡邑城, 周回四千三百六十九尺, 城高平地則十二尺, 高險處則九尺, 女牆高三尺, 敵臺六, 門三無擁城, 女牆六百三十九, 城內泉二, 海子未鑿.” 현재 남아있는 영암읍성 터는 4개 리(서남리·남풍리·동무리·역리)를 포함하기에 당시 영암읍성은 비교적 큰 규모를 지닌 성이었다는

무재가 뛰어난 장수였다. 뿐만 아니라 왜구의 침구 목적 자체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차원의 것이 아닌 제한된 지역에서의 약탈이었으므로 그들의 병력은 분산되어 운용되었다. 달량성 전투 이후 그들의 약탈은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되었기에 전투에 임했던 그들의 태도나 병력운용 자체는 이전의 그것보다는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이후 영암성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으나 사기 충천된 군민들의 적절한 수비로 공격을 막아내고 수성을 지속했다. 이에 왜구는 총공세를 계획하여 동문을 공격했으나 이 또한 이윤경 등에 의해 저지되었다. 왜구의 공격이 약해지자 조선군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으며 10여명의 특별 기동대를 조직하여 적군을 혼란시킨 후 바람을 이용하여 화전을 펼치며 왜구의 진영을 불태웠다. 이로써 110여명을 참획하였고 해당지역에서 왜구를 몰아낼 수 있었다.<sup>42)</sup>



〈그림 3〉 영암성 전투 상황도

것을 알 수 있다.

42)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9日.

영암성에서의 승리가 공세이전으로 이어져 대대적인 왜구 토벌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왜구의 점령지역 확대는 일단락되었다. 영암성 전투는 왜구의 계속된 약탈과 도발 범위의 확장을 저지했던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조선군의 사기를 양양시키고 민심을 다스리는데 주효했다.<sup>43)</sup> 이 사건으로 인해 왜구는 자신들의 침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 범위를 영암성 이내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더 이상 북쪽으로 진출하지는 않았을 뿐, 이미 장악했던 지역 및 접근 가능했던 연해 지방에 대한 약탈은 철수 과정에서 지속되었다. 그들은 加里浦 및 會寧浦에 정박하여 병영 내 군기를 태우고 군량을 가져갔으며 또한 병선을 태우거나 약탈해갔다.<sup>44)</sup>

이처럼 왜구는 자신들의 침구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며, 영암성 전투에서 입은 손실 외에 추가적인 피해 없이 철수할 수 있었다. 조선군이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이를 활용하여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군은 전황을 변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전과를 확대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왜구가 보여줬던 전술적 우위 때문이었다. 선불리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조선군이 매복에 의한 피해를 이미 경험했던 것에 기인한다.<sup>45)</sup> 즉 적 전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왜구는 애초에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 제한된 지역을 약탈하고자 했으므로 그들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기보다 철수를 택했다. 이후 잔여 왜구 1,000여명은 甫吉島를 지나 제주로 방향을 돌려 퇴각하는 가운데 재정비를 꾀했다. 그러나 당시 濟州牧使였던 金秀文 등 70여명이 왜구를 급습하여 피해를 입혔다.<sup>46)</sup> 제주에서 왜구가 다시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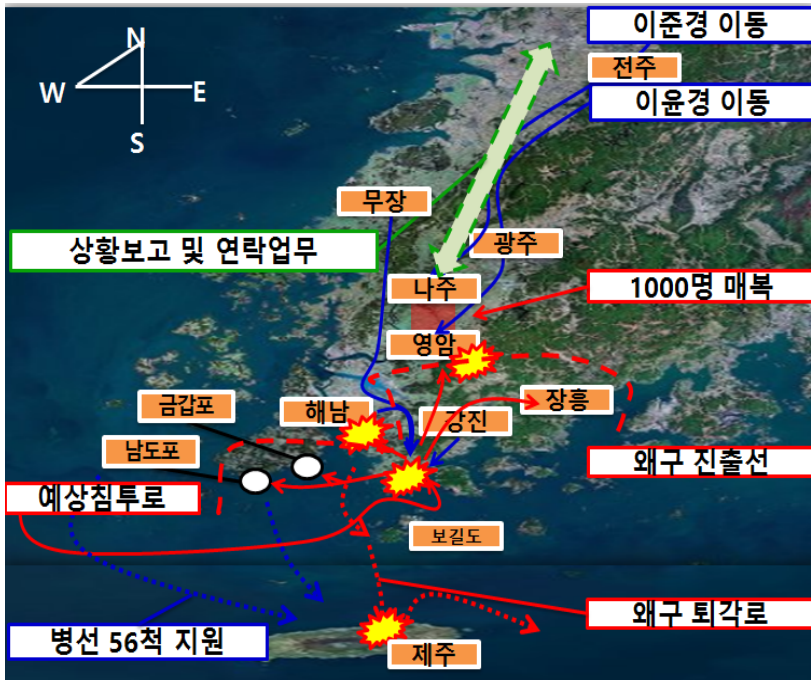
43)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6月 1日.

44)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6月 8日.

45)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1日.

46)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7月 6日.

장했다는 것은 또 다른 변란을 유발시킬 수 있었기에 전라도 순찰사 이준경은 선박 56척을 동원하여 휘하 장수들을 제주를 지원하도록 했다.<sup>47)</sup> 그러나 이후에 추가적인 왜구의 도발은 없었으며 을묘왜변은 이로써 막을 내렸다.



〈그림 4〉 을묘왜변 전체 작전 상황도

이처럼 을묘왜변은 왜구의 치밀한 계획수립과 ‘기만’, ‘포위섬멸’로 대변되는 뛰어난 전술로 인해 조선이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던 전란이었다. 그러나 왜변의 진행간 조선의 현장 지휘관들은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 왜구의 기만

47)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7月 10日.

으로 인해 적 세력을 오판하여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원적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즉각 이동하였고 결과적으로 왜구에 의해 중도에 제압되었지만 인근 장수들 또한 병력을 동원하여 달량성 지원을 시도했다.

달량성이 함락당하고 원적이 죽임을 당하는 등 전장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방책으로 전라도 관찰사였던 김주는 지휘 본부를 나주로 옮겼다. 나주는 영암성 아래의 작전선을 통제하며 중앙정부와 연락업무를 이상 없이 할 수 있었던 적절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전라도 관찰사 김주의 판단에 따른 전략적 후퇴 역시 단순히 비난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다.<sup>48)</sup> 특히 그가 실행한 결심 중 전주부윤이었던 이윤경을 영암성에 배치한 것은 전체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수문 역시 제주도에서 재정비 중인 왜구에 일침을 가하며 전란의 막바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압도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습을 통해 왜구를 제주로부터 격퇴시켰으며 아군의 피해 또한 없었다. 영암성 전투가 왜구의 침략 한계선을 설정하게끔 했던 전투라면 제주에서의 전투는 을묘왜변을 자체를 종결시켰던 사건이었다.

이후 영암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윤경은 가선대부가 되었고 이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sup>49)</sup> 김수문 역시 이후에도 제주 방비를 튼튼히 하며 왜선을 나포하고 왜구를 죽이는 등의 공을 세웠으므로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sup>50)</sup> 특히 김수문은 이전에 함경도 이용거도에 진을 설치하며 적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휘를

48) 강제훈은 전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휘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장의 상황이 김주의 보고에 의해 중앙정부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그의 이러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제훈, 앞의 논문, 2013.

49)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6月 5日.

50) 『明宗實錄』 明宗 12年(1557年) 9月 27日.

하였으며<sup>51)</sup> 을묘왜변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제주에서 왜구를 격퇴하는 등의 전공도 세웠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침구하는 왜구를 격퇴했다는 승전보를 중앙정부로 계속 보고했다. 그는 경상도 순변사, 한성부 판윤을 거쳐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sup>52)</sup> 차후에는 병조판서 후보에 까지 오르는 등<sup>53)</sup> 당대를 대표하는 조선의 명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남 현감 변협 역시 초기 달량성 지원에 실패했지만 해남지역을 방어하여 왜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흥부사로 승진했다.<sup>54)</sup>

김주는 당시 방비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파직되었으나 1년 후에 곧 개성부 유수로 임명받았고<sup>55)</sup> 이후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sup>56)</sup> 이외에도 남치근, 조안국, 최린 등은 『명종실록』 사론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각도의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특히 남치근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재를 인정받았으며<sup>57)</sup> 임궽정 등 도적집단을 제압하기 위해 토포사로 임명되는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무관으로 활동했다.<sup>58)</sup> 이처럼 을묘왜변 종결 이후 논공행상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당시 주요 현장 지휘관들의 차후 관직진출을 통해 현장에서의 대응 자체가 적합했다는 논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51) 김수문은 이응거도에 진을 설치하여 북방지역 야인에 대한 방비를 사전에 준비했다. 이른바 ‘선조치 후보고’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그가 야인과의 분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1552년 7월(명종 7)에 파출하였다. 이후 1555년(명종 10) 1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52) 『明宗實錄』 明宗 13年(1558年) 12月 7日.

53) 『明宗實錄』 明宗 18年(1563年) 12月 1日.

54)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8月 30日.

55) 『明宗實錄』 明宗 11年(1556年) 8月 25日.

56) 『明宗實錄』 明宗 15年(1560年) 12月 9日.

57) 『明宗實錄』 明宗 16年(1561年) 4月 21日. “南道兵使南致勤,前者,自上以爲可用,超授正二品之資,使之養望者,必欲用之於他日有事之時.南道雖曰巨鎮,以異日緩急較之,輕重懸殊.致勤之往南道,物情皆以爲未便,請遞留京.”

58) 『明宗實錄』 明宗 16年(1561年) 10月 6日.

#### 4. 을묘왜변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과 조치

을묘왜변이 일어날 무렵,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은 매끄럽지 못했으며, 특히 국방 분야는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흉년이 지속되었기에 군량은 부족한 상태였고 자연재해 및 역병까지 이어졌다.<sup>59)</sup> 총통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신속히 추가적으로 제작할 것이 논의되었고, 선박 또한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왜구와 수전을 벌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군기사에서 만들어졌던 무기 또한 상한 것이 대부분이었다.<sup>60)</sup> 심지어 국가가 군관들에게 지급할 군마가 없었기 때문에 전투현장으로 이동하는 장수들은 개인의 전마를 가지고 출정해야 했을 만큼 전시 필요물자가 당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sup>61)</sup>

군정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군적 작성의 필요성은 1552년(명종 7) 7월에 거론되었다. 이후 명종은 1553년(명종 8) 윤3월에 이를 지시했으며 약 2년의 기간을 거쳐 1555년(명종 10) 4월경에 완료되었다.<sup>62)</sup> 그러나 지방의 감고색리 등이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군적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군정의 폐단 자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민생에 폐를 끼쳤다.<sup>63)</sup> 문서에는 기록된 인원이 실제로 복무하지 않았으므로 각 진영에서의 병력 공백 문제가 유발되었다. 편제병력과 실제병력 간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

59) 『明宗實錄』明宗 10年(1555年) 5月 14日. “自殿下卽位以來, 災孽之作, 無歲無之, 水旱飢饉, 冬雷夏雹, 穀雨土雨, 桃李冬華, 日變星妖, 黃霧地震, 叢災累孽, 竝見一時.”

60) 『明宗實錄』明宗 20年(1565年) 12月 6日. “軍器寺, 所掌非輕, 必得其人, 以治其職, 然後器械犀利, 以備不虞. 嚮者, 狃於昇平, 提調或不擇人, 慢不檢察, 以致器具朽鈍. 을묘왜변時, 雖輸送于南方, 無一可用.”

61) 『明宗實錄』明宗 20年(1565年) 5月 16日.

62) 『明宗實錄』明宗 20年(1565年) 4月 25日.

63) 『明宗實錄』明宗 9年(1554年) 11月 25日. “軍籍之時, 下人等百端用術, 非徒以死爲生, 以生爲死, 至如廢疾如無足無目之人, 并皆定役, 故呈狀於本府者, 紛紜不絕. 請令兵曹, 辨其虛實, 依法改定.”

다.<sup>64)</sup> 이러한 상황을 통해 당시 조선의 병력이 질적·양적 수준에서 모두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전라도 관찰사 김주의 보고를 통해 최초로 을묘왜변의 발발을 인지했다. 이후 파산한 무신 및 무재가 있는 자들을 동원하는 것을 건의했으며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충청도에 대해서도 순찰사 및 방어사를 편성하였다.<sup>65)</sup> 전라도에 등장한 왜구는 비록 병선 70여척 규모의 병력이었지만 대마도주가 이전에 보낸 서계에는 더 큰 규모의 왜구가 침구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모든 도에 대한 방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달량성에서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정부는 뒤늦게 을묘왜변이 이전의 왜변과는 다른 성격의 전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sup>66)</sup> 이에 명종은 삼공 및 육경과 비변사를 명소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교하였다. 우선 군마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기를 보급하기 위해 인력을 대거 동원했으며 군량 부족은 법성포에 정박 중인 전세 운반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sup>67)</sup> 또한 부족한 병력은 능침을 제외한 승군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원래 홍문관에서는 승군 선발을 兩宗이 뽑는 것으로 건의하였지만, 비변사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장에 위치한 수령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였다. 한편 경상좌도 방어사 김세한을 청흥하도인 서천포에 이동시켜 왜구의 북진을 막고자 했다.<sup>68)</sup>

64) 장학근, 앞의 책, 2006, 141~142쪽 참고.

65)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6日. 당시 토벌군의 지휘부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도순찰사	좌도방 어사	우도방 어사	도순찰사	좌도방 어사	우도방 어사	방어사
성 명	이준경	남치근	김경석	조광원	조안국	윤선지	장세호

66)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9日.

67)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8日.

68)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9日.

정부는 유언비어를 막기 위한 활동도 실행하였다. 왜구에 의한 전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북쪽 야인에게까지 알려지면 국가가 양면에서 이를 진압해야하기에 위기가 도래할 수 있으므로 양계에서 이러한 상황이 절대 퍼지지 않게끔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유언비어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여 이를 금하고자 했다.<sup>69)</sup>

그러나 전술한 것들을 제외하고 조정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사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비변사 당상을 숙직시켜 비상상황에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해야함이 옳은 일이었지만 어차피 숙직하고 있는 당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명폐를 통해 유사시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는 점, 三浦倭亂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는 점을 중앙의 대신들이 언급하며 반대했기에 이는 구현되지 못했다.<sup>70)</sup>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현장 전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장수들의 지휘 및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체직하거나 추고하고자 했다. 특히 전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량성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이동했던 전라도 병마절도사 원적의 가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소모적 논의를 지속했다.<sup>71)</sup> 또한 당시 최전선에서 전장 전체를 지휘하며 중앙정부와의 연락업무를 지속하였던 김주를 휘하 장수를 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줄 것을 논하기도 했다.<sup>72)</sup> 사실 이러한 내용의 논의는 왜변을 완전히 진압한 이후에야 나와야 될 성격의 논의였으며 현장 전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였다.

이후 총통의 제조를 위해 동대문 및 남대문 성 위에 버려 둔 큰

69)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0日.

70)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2日.

71)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22日.

72) 『明宗實錄』 明宗 10年(1555年) 5月 18日.

종을 활용할 것이 건의되고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승군을 동원해야 된다는 사항이 언급된 이후부터 왜변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점차 변질되었다. 원래 총통주조는 왜변이라는 상황 속에서 시급함이 인정되는 주요 무기의 확보책이었고 병력의 증원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유사시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태가 어느 정도 소강되자 총통주조와 승군동원에 대한 논의는 불교와 연관되어 을묘왜변보다 더 큰 차원의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데 이르렀다. 당시 명종은 국가 재산을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찰의 물건과 무분별한 승군 선발은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절박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물건을 활용하여 총통을 주조하는 것과 승군 동원을 제한하는 명종에 대한 사관의 부정적 평가는 종사의 위망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sup>73)</sup>

이처럼 중앙정부는 을묘왜변이 발생할 무렵 국방 분야를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했다. 왜변이 발발한 직후에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장 전투에 대한 중앙정부의 근본적 이해부족에 의해 왜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비합리적이고 부적합한 대응과 조치만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후 왜변에 대한 대책은 불교를 두고 첨예한 논리로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차질을 초래했던 대규모 외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적 인식으로 비변사는 관제상의 정식아문이 되었고 국방 기관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73) 『明宗實錄』明宗 10年(1555年) 7月 2日. “倭寇陸梁, 湖南列邑, 幾入賊手, 而上之所以爲念者, 唯在諸寺之鍾, 不知禦寇之急. 元帥之收鐵鑄戎器, 爲有邊圉之棘, 而以擅便下手非之. 政院之請勿下書, 恐爲君德之累, 而以不知事體責之, 此朝野之所以失望, 而將士之所以解體者也. 嗚呼! 今日 왜구之變, 其禍小; 後日奉佛之害, 其患大. 竊恐宗社之危亡, 始於今日, 而終不可救矣.”

## 5. 맺음말

당시 조선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마도주를 통한 왜구의 통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왜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선정부는 대마도주와 접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광의적 의미의 왜구는 대마도주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후기왜구’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해적집단 내에도 세력이 존재했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가 연안지방에서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해적집단이었다. 그러나 침구 가능 세력을 세밀히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교한 외교정책의 발휘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대외정책은 강경 노선으로 지속되었다.

이에 왜구는 전란을 계획했으며 침구 이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전란을 준비했다. 이들은 왜구 내 조선인을 통해 해당지역 및 조선군의 방어체제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달랑포를 상륙지역으로 선정하고 기만전술로 자신들이 상대하게 될 각 진영의 분산된 조선군이 최소로 동원되게끔 만들어 전장에서의 전투력 우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동시에 주요 길목을 장악하여 각 진으로부터의 지원을 차단하고 포위된 조선군을 섬멸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현장 지휘관들은 진관체제에 기초하여 상황 발생지역을 지원했으며, 왜구의 약탈 범위 확장을 억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비교적 다했다. 특히 왜변의 변곡점이 되었던 영암성 전투의 전후 상황에 있어 그들은 합리적으로 대응했다. 김주는 지휘소를 이동하여 전체 작전을 조망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전장에서의 상황을 적절히 보고하였으며 남치근은 1,000여명의 왜구를 유병화시켰다. 또한 이윤경은 군민들을 단결시키고 왜구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한 후 역공하여 왜구의 팽창 의지를 꺾었다.

반면 을묘왜변이 발발할 무렵 중앙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 국방 분야는 더욱 그러했다. 병력 및 군량, 무기 등 국방의 제반 사항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왜변 전개과정에 있어서도 이들의 대처는 실질적이지 못했다.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는 하지 않은 채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치죄를 논했고 영암성에서의 승리 이후 소강상태가 되자 그들은 총통주조와 승군 동원의 논의를 불교를 억압하는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을묘왜변은 중앙정부의 정교하지 못했던 외교정책 및 비전략적 조치와 제한된 여건 속 전투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으로 구분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2017.4.8, 심사수정일: 2017.5.22,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을묘왜변, 왜구, 해적, 명종, 대일관계, 삼포왜란, 진관체제

<ABSTRACT>

## Military and Government Response of Eulmyo Invasion During the King Myeongjong Era of Joseon Dynasty

Moon, Jun-Ho

Perpetually invading the coastal regions and harming people as well as stealing properties, the Japanese invaders were considered as the main enemy to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Joseon. Accordingly, Joseon used the lord of Tsushima in order to subdue the invaders. However, as the Japanese invaders consisted of pirates of different nationalities, the Tsushima lord did not have absolute power or authority over them. Nevertheless, Joseon maintained a hard-line policy instead of developing more sophisticated policy based on thorough analysis of the likelihood of invasion and preparing measures against different groups.

As a result, with rigorous preparation including selection of landing site in advance, the Japanese invaders carried out Eulmyo Invasion. They used a deceptive tactic in order to induce minimal army from Joseon and secured a dominant position. Also, by dominating a major site as their foothold, they blocked assistance from other regions and destroyed the Joseon army including the regional commander during battle. This not only caused mayhem in the command system but also demoralized Joseon army.

However, despite the disadvantageous situation, the commanders in Jeollado provided soldiers based on the regional defense system, and strove to limit the invasion by the Japanese. Particularly, the Yeongamseong battle, which marked a watershed in the invasion, demonstrated the rational response of the commanders who succeeded in preventing the Japanese invaders from expanding their domain. Later, the regional commanders were recognized for their achievement by being granted honor.

Meanwhile, during Eulmyo Invasion, the central government failed to

operate effectively. Especially, it did not provide adequate military force and supplies, causing difficulties to the regional army. Furthermore, during the invasion,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of Joseon failed to take practical measures and only used the invasion as a pretext to expand their political auth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Eulmyo Invasion based on the efficient response provided in the battle, as opposed to unsuccessful diplomatic policy and strategically inadequate measure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Keywords : Eulmyo Invasion, Japanese invaders, Pirate, King Myeongjong, Relationship with Japan, Sampo Invasion, Regional defense system.

